

국가안보 농업·농촌에 달려 있어

풍요시대 식량자급률 25%, '국민 건강' 외국농산물에 맡겨선 위험천만
 땅의 소중한 가치 농산물서 느끼고, 농촌 공익·안보적 가치 인정해야

한 국가의 안보가 농촌과 농업에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기후온난화는 세계의 기상을 바꾸고 이렇듯 바뀌진 기상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물의 부족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하물며 이런 문제에 대응이 가능한 해답을 농촌과 농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농업·농촌 중요성 간파, 위험천만

우리나라 과거 오랜 역사는 물론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의 70~80%가 살았던 우리의 농촌은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는 초석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네 농촌은 어떠한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지는 오래전의 일이다. 고령의 늙고 지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마을 살이, 매년 늘어나는 빈 집은 흉물스러운 폐가로 변해 눈살을 자아내게 한다. 그 뿐인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벌여야 하는 농민들의 처절한 싸움은 한 두 해로 끝나 보이지 않는다. 또 도시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 낮은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 농촌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또 무엇일 것인가? 그 농촌의 우리 고향마을과 마을 공동체 문화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국인이란 모두가 늘 스스로에게 물을
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서 농촌이 우리나라
와 한국사회에 베푼 은혜를 늘 되새겨보아야
한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적지 않은 훌륭한 일
꾼들은 농촌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와 땀으
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오직했으면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고 했겠는가? 또 산업화
초기 값싼 노동력은 우리 농촌의 형제자매들
로부터 공급받았지 않았는가? 어찌 그 뿐인
가? 허기진 국민의 배를 채워주고 사시사철
풍요로운 식탁을 마련해 준 것이 누구인가?
매년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를 흡수해 공
기를 깨끗이 함은 물론 바다로 흘러갈 물을
지하수로 함유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등 매년
30조원 이상이 된다는 환경적 공익가치를 제
공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바로 농촌이다.
어디 그뿐인가? 매일 매일 일상생활에 찌들
고 피곤한 도시민들의 심신을 풀어주는 곳도
농촌이고 도시의 각종 산업 활동을 뒷받침
할 교통망을 비롯한 물류체계구축도 농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지금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농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도시근로자들이 노동투
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농촌
농민들의 농산물 제값 받게 해달라는 외침에
는 무관심 하고 있다. 심지어는 농촌을 가라
앉고 있는 배(영화에 나오는 타이타닉호)로
비유하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을 아무 때
나 외국에서 값싸게
사다 먹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논
리에서이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송 인 성
전남대학교 경명대학교 교수

‘식량·물문제 해결’ 농업·농촌 발전에서

우선 식량을 보자. 그야말로 풍요의 시대
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내외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수입농산물이 과
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가 그 하나이고, 그
렇다고 계속하여 이렇게 값싸고 안정적인 수
입이 보장될 수 있는가가 또 다른 문제다. 그
동안 우리는 값싼 수입식량과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수 없이 대두되는 것을 보아 왔다. 또
그러한 외국 농산물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간
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외국으로부터의 식량
의 안정적 공급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량생산은 기상조건 등 환경에 크
게 좌우되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기상
이변이 수 없이 경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 국방성은 미국의 안보를 전쟁무기로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두지 않는다. 그 보다
는 기상이변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먹여 살릴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미국안보전략
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농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도시근로자들이 노동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농촌 농민들의
농산물 제값 받게 해달라는 외침에는
무관심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주의 깊게 경청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심각한 기상 이변이 전 세계 식량생산기지를 크게 축소시킬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 때 한국의 식량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때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안정적 식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인가?

옛날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삼년 연속되었던 흉년에 따른 식량 부족이다. 서방세계는 소련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식량 원조를 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안보의 큰 축을 국방과 함께 식량안보에 두어야 하고 그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철학 속에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물 문제를 생각해보자. 2010년부터 물 부족이 예견되는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농촌의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깨끗하게 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농촌 환경의 오염, 수맥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 그리고 비합리적인 지하수관리 체계로 지하수 오염 및 지하수원 고갈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건강한 농촌 및 체계적인 농촌지하수원 관리만이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안보의 제3의 축이다. 제3의 국가안보 축인 농촌의 지하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과



농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농업·농촌이 담보

국가안보의 세 축 중에 두 개가 농촌 및 농업에 달려 있다. 그 중요성을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 80%를 넘는 도시민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농촌을 사람 살 수 있는 곳, 농업경영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 시행하여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를 위해 감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 동안 농민으로 일하다 이제 일손을 놓으신 그분들은 어느 분야의 국가유공자에도 버금가는 훌륭한 분들이다. 이에 국가 유공자로 예우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가칭)평생농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경영자의 노후보장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하여 농촌에 머무르면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연금혜택도 주고 질병치료 혜택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분들의 공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것과 국토자원의 유지 관리자로서의 역할, 국민에게 풍족한 식량을 공급한 기여자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제 값 쳐주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형적으로는 WTO체제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농촌 및 농업의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농촌 환경을 살리는 일, 특히 지하수

원을 보호하고 지하수 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체제와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체제를 좀 더 확대하여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 할 수 있게 하고 전국적인 지하수 현황조사와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부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의 의료보건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질이 도시수준보다 낮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바로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질이 도시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선되면 농촌도 살맛나는 곳이 되고 현재의 농민도 계속 정주하게 될 것이며 출향인사들도 되돌아오는 물론 도시민들도 농촌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하려면 도시민들께서 농민들이 흘리는 땀의 소중한 가치를 농산물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 농촌의 공익적, 안보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의 농촌주민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닥칠 새로운 국가안보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로 농촌과 농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若無農村 農業 施無國家).